

theme

충남 사회적경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다

CHUNGNAM
SOCIAL ECONOMY
CENTER MAGAZINE

2024년 12월
vol.2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매거진

사경꿀.zip

vo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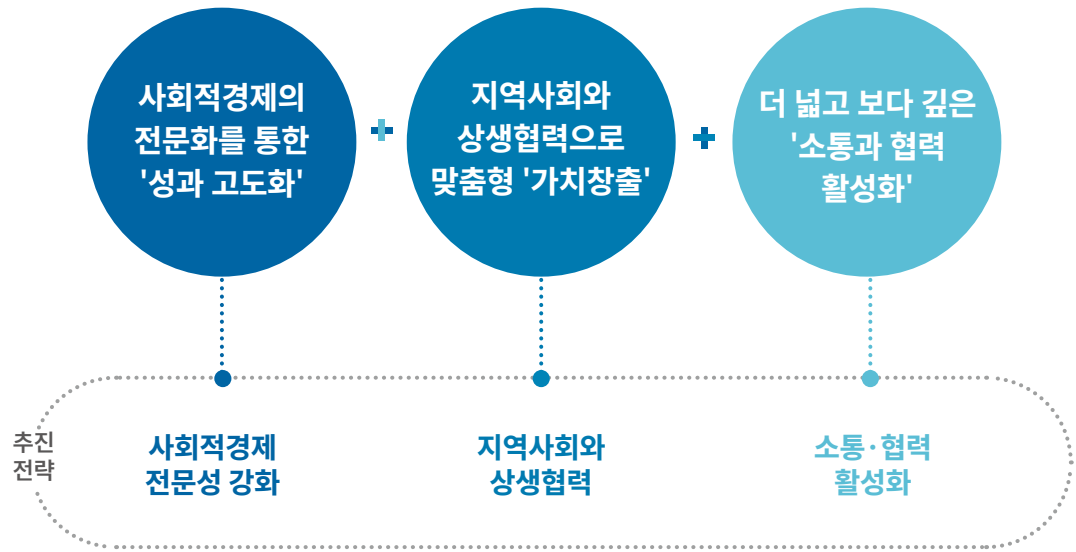
- 00 센터소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비전·전략·조직
- 00 사회적경제 토크투 2025년 충남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길을 찾다
_안장현 도의원
- 00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미리보기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는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관 준비 완료!
- 00 충남사회적경제기업을 소개합니다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의 기준이 되다 -(주)위드유
땅을 살리는 농업, 너와 우리 그리고 지구와 공존하는 일 -농업회사법인내포(주)
협동의 힘으로행복을 만드는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아우내공동체
탄소0을 만들 때까지! -탄소영 협동조합
- 00 센터 사업 톨아보기 충남사회적경제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경영지원플랫폼 씨앗
2024 충남 사회적경제 한마당
마을기업 판로사업 더 알아보기
용기 내어 따숨마켓 참여후기
사회적경제 팝업매장 체험프로그램 참여후기
- 00 사회적경제 이-슈 칼럼 SVI 측정의 중요성
_한국사회적경제기업진흥원 대전·충남 김대열 센터장

발행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발행인 이상영
 발행일 2024년 12월 13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 3층
 홈페이지 www.cnse.kr
 연락처 041-406-8120
 디자인 (주)디자인사과나무

비전

함께하는사회적경제,
힘센충남의 동력

목표



1 사회적경제 전문성 강화



2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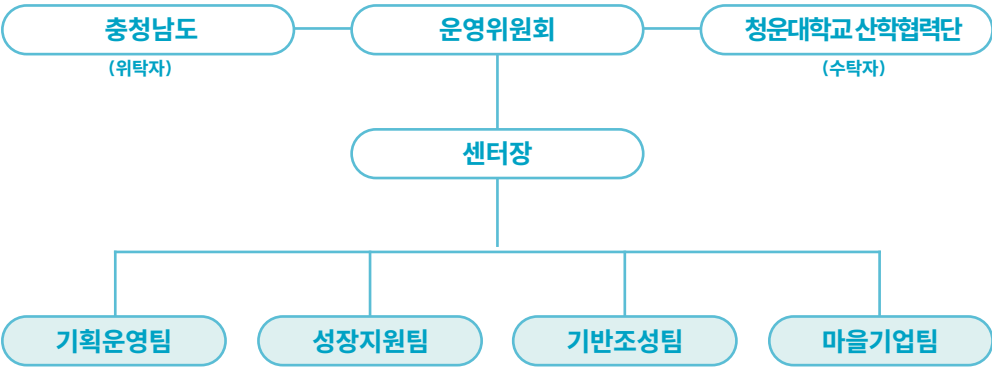
3 소통·협력 활성화



4 사회적경제 진입 지원



조직도



조직별 업무

기획운영팀 (4명)
041)406-8120

- 센터 사업기획 및 예산 총괄
- 센터 운영 및 관리/홍보
- 각종 위원회 관리
- 사회적경제 조사연구 및 DB관리
-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 및 제안
- 후원사업 운영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홍보

성장지원팀 (4명)
041)406-8130

-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 지역 상생 협력사업
- 사회적경제 경영 컨설팅
- 사회적경제 경영 교육
- CSR 사회적경제 연계
- 사회적경제 경영지원 플랫폼
- 사회적경제 금융 활성화

기반조성팀 (3명)
041)406-8126

- 시군 생태계 조성 지원
- 사회적경제 교육 지원
- 사회적경제 포럼 운영
-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 사회적경제 한마당
-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 사회적경제 홍보 활성화

마을기업팀 (3명)
041)406-8134

-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지원
- 마을기업 DB관리 및 현장지원
- 마을기업 판로지원
- 사회적경제 진입 교육 플랫폼 운영

사회적경제 토크쇼!

인터뷰 안장현 도의원

2025년 충남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길을 찾다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도민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아산 출신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현 의원입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관련 활동들도 꾸준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항상 환율과 국제 원자재 등의 외부 영향에 크게 흔들립니다. 내재적 발전을 이끄는 사회적경제야말로 앞으로 우리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시스템입니다. 특히 충남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영리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외부로 가장 많이 유출되는 구조라 실제 도내에서 생산하고, 도내에서 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의회는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며 행정부서를 감시·견제하는 일을 기본으로 합니다.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 뿐 아니라 공공구매, 공유경제, 사회성과보상사업(SPC) 등 사회적경제와 연관된 조례가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불어 정부의 기조 변화에 따라 위축된 사회적경제에 힘이 될 수 있는 충남의 특별한 시책을 만들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충남형 사회적경제 진흥책'은 무엇인가요?

몇 년전까지 사회적경제가 전체 시장규모 대비 가장 활성화되는 흐름을 보인 것이 충남이었습니다. 도농이 함께 있고, 고령화와 청년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며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과 하이테크 제품까지 생산·유통해야 하는 충남의 사회적경제는 국가 전체 사회적경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남 사회적경제는 지난 10여년 동안 급속한 양적 성장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해 마을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며, 도내 생산→유통→소비 구조를 정착하여 충남의 지역경제의 풀뿌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구성원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확대하여 충남 지역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회적가치를 달성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충남사회적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진흥책의 마련은 충청남도 의회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남사회적



경제를 중흥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펀드 조성을 위한 노력 등에도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배려와 투자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최근 사회적경제 민간영역과 도 담당부서와의 간담회 주제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도민 의견수렴에 애써주고 계신데,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하게 되면서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을 뵈었을 때 느낀 가장 문제는 정책과 현장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이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당사자 시각에서 고민하고 당사자에게 방향을 묻는 것이 거버넌스의 시작이자 사업 성공의 첫 단추이기도 합니다. 2025년 정부 예산 편성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도비 자체 사업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의회 내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 확산을 통해 정책의 개발과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에 적극 참여하시고, 이를 통해 '충남사회적경제기금' 및 '충남 사회적경제 전담기구(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번 제12대 충남도의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영역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계획이 있으신지요?

사회적경제기금 조례가 2024년으로 일몰될 예정이라 개정을 통해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기금의 구체적인 집행도 당사자 입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도청의 예산 집행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개관하게 되는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충남사회적경제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몰심양면으로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인터뷰를 보게 될 1,800여개의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및 관계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대부분은 지역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위기가 찾아 온 이 때 사회적경제는 묵묵히 지역에서 공동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이념이 아닌 지역민의 삶과 생활이 녹아든 충청남도 공동체의 생활경제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는 포기할수도, 멈출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면 현재의 주류 경제시스템보다 더 인정받고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함께 그 길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는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개관 준비 완료!

글 장희주 에디터

충남도 내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이 2025년 4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 가능성과 자립성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이자 거점 공간으로 조성됐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입주기업을 위한 사무 공간뿐만 아니라 메이커스페이스, 전시·판매공간, 휴게실, 회의실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 중인 혁신타운을 탐방하고 왔다.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다양한 시설들이, 충남도 내 사회적경제 기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국 최초 농촌형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지난 2023년 4월, 혁신타운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뜨는 행사가 청양군 옛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진행됐다. 특히 혁신타운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역점 사업으로, 충남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됐다.

혁신타운 건립에는 국비 140억 원, 도비 88억 원, 군비 59억 원 등 287억여 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7333㎡ 규모로 조성됐다. 혁신타운에는 충남도 내 중간 지원조직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이 입주하게 된다. 혁신타운 전용 공간에 상주하는 기업 34개소와 개방형 공유공간을 사용하는 등록 기업 100개소를 모집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혁신타운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업의 성장과 기업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충남의 사회적경제의 중심 허브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면 조감도



후면 조감도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 UP!

그렇다면 혁신센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혁신타운은 단순한 사무 공간을 넘어, 사회적경제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설계됐다.

지상 3층과 4층은 입주 기업의 사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에는 다양한 크기의 공간이 마련돼 있다. 사무 공간은 총 34실로, 각 10평·20평·40평 규모로 제공된다. 또한 소형 및 중형 회의실을 갖춰 기업들이 외부 고객과 미팅을 진행하거나 내부 회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대회의실에는 최신 프로젝트빔이 설치되어있어, 효율적인 회의를 가능하게 한다. 라운지 공간은 입주 기업이 휴식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업무 중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기업과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 기업 간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은 물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줄 것이다.



사무공간



사무공간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1층 로비 전경



대회의실



1층 카페



영상제작실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지상 2층에는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교육실·회의실(대·중·소)·영상제작실 등이 바로 그것. 교육실은 직원 교육이나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한 대·중·소 크기의 회의실도 마련돼 있어 대규모 미팅·세미나·워크숍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대회의실의 경우에는 10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만한 공간은 ‘영상제작실’이다.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홍보 영상을 촬영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있도록 한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다. 한 공간은 화이트 호리존으로 꾸며져 있어 다양한 촬영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1층 역시 입주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간이 조성돼 있다. 시제품 제작실(식품시제품)은 기업이 자사 제품을 만들거나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특히 식품 분야에 특화된 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더불어 혁신타운에 들어서자마자 만날 수 있는 전시장에는 기업들의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렸다. 이 공간은 기업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위해 꼭 필요로 한 공간인 카페도 있다. 이곳은 입주 기업이 휴식을 취하거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로 조성됐다. 혁신타운의 원활한 운영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다양한 지원을 담당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역시 1층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처럼 4층 규모로 조성되는 혁신타운은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허브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현안 문제를 위해 앞선 기업 우선 선정

혁신타운에는 충남 지역 현안 문제인 탄소중립·지역소멸·농촌·농업 활성화 등을 기업 가치 목표로 설정한 ‘사회적경제 기업’이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입주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 기업 선정 과정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심사위원회’를 거쳐 진행된다. 서류 심사에서는 공고상 입주 적격 자격에 해당하는지, 국가나 도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이나 제재가 있는지 평가하고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등은 제외한다. 더불어 소음·진동·폐수·악취 등 환경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도 심사에서 제외된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5~7인 내외의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각 심사위원의 심사 점수를 산술 평균해 총점 70점 이상을 득점한 기업 중 모집 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동일한 우선순위 내에서는 충남 지역 현안 문제를 기업 가치 목표로 설정한 기업이 우선 지원되며, 이후 고득점 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입주 지원이 이뤄진다.

등록 기업 선정 과정은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위와 마찬가지로 입주 적격 자격에 해당하는 지, 참여 제한이나 제재가 있는지 평가한 후 등록 기업으로 선정한다.

이러한 심사 절차를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만이 혁신타운에 입주할 수 있으며, 이들 기업은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혁신센터가 위치한 청양군 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등의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마감은 2025년 1월 17일까지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청’ 도정공고 게시판 혹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방식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제출처
goodlf7750@korea.kr
(041-635-3321)
※메일발송 후 반드시 접수 전화 확인

접수기한
2025년 1월 17일(금)
17시까지

<충남사회적경제 기업경영지원의 씨를 뿌리다2 '위드유' 사례 소개>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의 기준이 되다

안정적 근로환경으로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복지정책의 모델로

글 (주)위드유 - 김영식 대표



(주)위드유를
소개해주세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저출산,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구학적 관점에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의 속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진행되어,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는 막대한 수준이 예측되어 국가의 최우선 선결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2000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고령사회(2018년, 14%), 초고령 사회(2025년 20% 이상)로 진행된 시간이 불과 25년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준비시간이 매우 촉박하였고, 초고령사회에 필수적인 돌봄에 대한 관심 역시 기대 대비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정책 등이 적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위드유는 오랜기간 돌봄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표가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충청남도, 아산시)의 정책육구와 맞닿아 사회적기업을 통한 돌봄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 도내 최대 인력지원기업(일자리 14명 + 전문인력 6명 = 총 20명)으로 선정되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서비스 수혜자 및 그 가족들의 높은 만족도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2024년 간병급여화 시범사업 충남지역 협력업체로 선정되어 간병인력, 관리인력, 노인일자리 등 총 15명의 근로자와 최상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위드유의 사업수행과정에서
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주)위드유의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울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수행자 등의 인식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지원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요양보호사)에 대한 안정적 근로조건을 조성하고, 돌봄서비스 관리감독자의 인식개선을 통해 각각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상호협력적 업무 수행을 통하여 존중과 배려가 기반이 되는 사업장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접근한다

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천차만별로 갈라지며, 수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학대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간병 현장에서는 간호인력과 충돌하여 간병인력이 수시로 교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기대하는 돌봄서비스 수혜자와 가족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주)위드유는 이러한 돌봄서비스 제공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초기에 요양보호사를 관리감독하는 간호 인력은 우려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주)위드유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제공 시스템을 확인한 지금은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개선’으로 요양기관의 수익구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요양기관에서 양질의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안정적 근로제공의 보장과 이에 따른 임금의 지급이 최우선과제였습니다. 돌봄서비스의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제공되는 현실에서 서비스제공인력의 경제적·정서적 불안정은 결국 수혜자인 환자에 대한 존엄케어와 직결됩니다.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에게 안정적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기본권과 건강권이 보장하는 일은 존엄케어 실현에 우선적으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주)위드유는 참여자와 수혜자 모두가 존엄한 대우를 받는 세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관계를 우선 말씀드려야겠네요.
(주)위드유가 창업을 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된 기관들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담당부

서, 아산시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그리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그 동안의 사업경험으로 볼 때, 돌봄인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안정적 지위와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해주신 충청남도과 아산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위드유를 창업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광역중간지원조직인 센터를 알게 되었고,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및 컨설팅에 대해서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소셜벤처 IR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기업의 인사·노무 관련 자문, 공모사업 수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컨설턴트를 매칭하여 지원해 줌으로써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기업문제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문제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SVI측정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고, 2024년 12월 11일 충청남도에서 인증하는 출산&육아 우수기업으로 인증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충청남도과 아산시와 함께 한 일자리창출사업 모델을 2024년 간병급여화 사업 모델과 연계한 점은 개인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사업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주요 이벤트가 있다면?





큰 보람이면서 성과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돌봄업계에서도 생소한 근로자파견 형태를 기반으로 (주)위드유가 돌봄근로자를 위한 안정적 근로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 품질의 개선으로 높은 소비자 만족도에 기인한 기업과 요양기관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창출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위드유의 사업모델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병급여화 시범사업에서의 모델로 반영된 것은 개별 기업과 충청남도과 아산시의 입장에서도 가장 큰 성과로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고, 향후 초고령사회 진입 후 돌봄 관련 정책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케이스로 반영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성공이벤트과정에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주)위드유의 사업설계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운영과 관련된 전문컨설팅을 제공해 주었고,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든든한 지원자 겸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 줄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위드유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주)위드유의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 프로세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돌봄서비스의 특성상 보건복지 관련 부서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기업의 지위로 볼 때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아산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수행에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실제 운영과정에서 행정 영역과의 소통에 있어 부서별 담당업무에 따라 협조체계의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위드유의 사업영역은 복지 분야에 해당하고, 사업체의 특성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재

**사회적기업가로서
각오가 있다면?**

정지원사업의 참여 역시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업영역의 확장을 위한 노력에서 각 부서별 전담업무 분야가 있기에 상호협력이 요구되는데, 이를 켈 수 있는 관계부서협력회의 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기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특성상 행정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사업영역이기에 이에 대한 감독관청의 범부서별 협력체 회의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정책변화로 인한 부침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가로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항상 가슴 속 깊이 새기고,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돌봄은 특정인, 특정기관 만의 고민과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이자 의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가족, 서비스 제공근로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땅을 살리는 농업, 너와 우리 그리고 지구와 공존하는 일

농업회사법인 내포(주)
엄청나이사

글 장희주에디터

들녘이 일터인 사람에게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수많은 문제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다가온다. 때가 되면 자라야 할 식물이 더 이상 자랄 기미를 보이지 않고, 꽃에서 꽃으로 꽃가루를 운반하는 꿀벌이 사라져 작물의 수확량이 급감하게 되며, 이러한 결과는 들녘이 삶의 터전인 사람들에게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즉,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를 넘어 땅을 일궈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예산에서 나고 자란 농업회사법인 내포(주)(이하 내포주식회사) 엄청난 이사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하며 직시해 온 한 사람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에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땅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사라진 꿀벌이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며, 더불어 인간으로부터 생산된 제품들이 지구에 해가 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함께 살아 가는 사람이 더불어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그것이 바로 엄청난 이사가 내포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우리와 지구가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다.

내포주식회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2013년에 쌀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후 직접 쌀을 팔아 보자며 예산군농민회를 주축으로 2015년에 예산 지역 주변 기업들과 쌀을 공동으로 판매하는 일을 모색했는데, 이미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어서 이 역시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가공 사업으로 눈길을 돌렸죠. 당시만 해도 식용유는 100% 수입한 콩으로 가공됐기 때문에 우리는 유채 씨앗을 이용한 식용유 가공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약 30만 평에 유채 꽃밭을 조성하고, 유채를 이용한 식용유 가공을 시도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밭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고, 다른 식물과의 교잡도 일어나고요. 결국 2년 만에 포기하게 됐죠. 그러다 우연히 주변 농가를 둘러보니 들깨와 참깨 농사를 많이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참깨와 들깨를 활용해 참기름과 들기름을 생산해 보자는 생각으로 내포주식회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 판매는 어땠어요?

첫해인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직거래 장터가 활기를 띠던 때였는데, 코로나로 팔 곳도 사겠다는 곳도 없었죠. 판매량이 정말 미미했어요. 농사까지 지으며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온라인 판매로 판로를 변경했어요. 그렇게 판매 전략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초창기에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후 코로나가 끝나고 온라인에서 저변을 넓혀둔 덕에 직거래 장터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 가공에 앞서, 지역 농민들이 재배한 참깨·들깨를 비싼 가격에 구매한다고 들었어요.

내포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함께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깨 생산 농민들에게 공정한 가격으로 깨를 구매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같이 잘 사려면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그래야 좋은 깨를 생산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깨를 생산할 때 꼭 유기 농법으로 재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는 해요. 특히 제초제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신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생분해 비닐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유기농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내포주식회사가 지향하는 농업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땅을 살리는 농업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기후변화가 절실하게 느껴져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우리의 일터를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유기농법을 고수하는 일은, 곧 우리의 일터를 지키는 일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생산하는 과정과 공정을 모두 친환경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하나요?

먼저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동네에서 박스를 수거하시는 어르신들께 깨끗한 박스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드리며, 장당 100원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렇게 수거한 박스나 신문지를 활용해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쿠션 포장지를 만들어 상품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참기름과 들기름을 짜내고 난 후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름을 활용해 '설거지 바'도



만들고 있어요. 만들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설거지 바는 대부분 수입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산이면서 환경에 해롭지 않은 설거지 바를 만들게 됐습니다. 설거지 바를 사용하면 고무장갑을 안 껴도 된 다면서 어르신들이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설거지 바와 같이 사용하면 좋을 수세미도 생각해 봤어요. 천연 수세미는 농민들이 직접 재배해 생산한 토종 수세미예요. 수세미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농민들에게 소일거리도 제공하고 있어요.

어떤 소일거리예요.

수세미를 가위로 채단하고 손으로 직접 박음질 하며, 삼베로 마감 처리하는 작업을 맡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삼베 수세미'입니다. 요즘은 양말을 만들고 남은 천 자투리인 양말목을 활용해서 기름을 포장하는 '그물주머니'도 만들고 있어요. 이 작업 역시 모두 이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담당하고 계세요. 이처럼 내포주식회사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함께 잘 살고 싶다'는 가치를 충실히 실현하고 계신데요. 충남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도 참여하셨고 또 우수사례로도 선정되었다고 들었어요. 그 지원들이 내포주식회사가 성장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여러 사업에 참여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중 하나가 충남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충남도의 지원이 없었다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웠을 거예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고령의 어르신들을 고용하게 되면서 내포주식회사의 비누·수세미·그물주머니 등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일반 기업에서는 인건비 문제로 불가능했을 일이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이었기에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죠. 덕분에 예산 지역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경제적 인 도움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작년 한 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충남경제진흥원의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덕분에 판로를 다양하게 개척할 수 있었어요. 온라인 채널뿐만 아니라 홈쇼핑까지 판로를 개척해 준 덕분에 판매량도 높아졌어요. 특히 그런 과정에서 홈쇼핑에 내포주식회사의 기름을 판매할 기회도 얻었어요. 그때 미쉐린 1스타 윤서울의 김도운 셰프님이 함께 참여하셔서 제품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런 덕에 주문이 폭주하기도 했어요. 이후에도 고맙게도 셰프님 레스토랑에서 꾸준히 내포주식회사의 제품을 사용해 주고 계세요.

무엇보다 가장 큰 도움은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처음에는 농민들과 협력하여 생산하는 과정이 전부 자체 비용으로 이뤄졌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충남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사업을 통해 생산자들과 함께 농사짓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생분해 비닐 사용, 공동 파종, 공동 육묘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생산 과정이 더욱 안정적이게 되었고, 좋은 묘를 길러 품질 좋은 들깨를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앞서 이야기 해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깨를 수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농민들이 선별 작업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내포주식회사 한 칸에 선별기도 구비해 뒀어요. 선별 작업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를 더 쉽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큰 비용을 들여 투자한 거예요. 그냥 함께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0년에 내포주식회사와 함께 일했던 어르신들이 아직도 계

속해서 함께 일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생산자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포주식회사만의 언어로 투박하지만 진실함을 담아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해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생산자가 거의 100명 가까이 돼요. 그런 생산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떻게 농사짓는지 등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있어요. 그물주머니를 짜는 모습이나 들깨를 생산하는 과정 등,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든 유일한 것들을 세상에 들려주고 싶어서 그들의 진심을 인스타그램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해요.

매년 내포주식회사는 성장해 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산자가 수매를 바라며 찾아오지만, 그만큼 내포주식회사의 책임도 뒤따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생산자와 함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마을기업을 소개합니다>

협동의 힘으로 행복을 만드는 마을공동체

천안) 협동조합아우내공동체



아우내공동체를 소개해주세요.

아우내공동체는 2013년 겨울 병천면으로 이전한 중고등대안학교인 '아힘나평화학교'에서 시작한 협동조합으로,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 평화, 아리아리 협동조합, 주민신용협동조합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이자 마을기업입니다.

'협동조합 아우내공동체'는 지역에서 활동하며 공동체를 만들고 '협동조합 간 협동조합'을 시도하며 지역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우내공동체를 만든 사람들은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정한 교육 공간이 필요했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다니며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천안에도 그런 과정을 통해 오게 됐는데, 천안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큰 수해를 입었던 2017년, 학교 건물이 폭우로 무너지며 학교 운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학교 건물이 망가지면서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선생과 학부모들은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했습니다. 수해를 입었던 마을을 복구하며 주민들과 깊은 교류를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계기로 졸업생, 학부모, 마을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

는 협동조합을 만들어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뭉쳤던 경험이 씨앗이 돼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바로 아우내공동체입니다.

아우내공동체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협동조합 아우내공동체는 공감과 희망, 다양한 협력을 가르치는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개인의 삶이 보장되고 공동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협력의 공간을 만들어 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식의주에 기반한 모든 일상의 자원들을 알립니다.

마을 자원인 숲을 활용한 숲모험놀이터를 만들어 지역민(가족들)에게 건전한 놀이 문화 및 휴식 공간 제공하기도 하며, 마을 어르신들이 소유한 휴(休)농지로 협업농장을 만들어 청년들과 노인들이 함께 운영합니다. 때론 가족들을 위한 치유농장이 되기도 합니다. 창작 작업장인 '아주 좋은날(갤러리, 공방)' 운영으로 청년과 마을주민의 소통과 공유 공간을 제공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기억과평화와 연계하여 아우내의 지역콘텐츠인 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개

발 및 투어프로그램 운영, 지역민들이 아우내 역사를 직접 설명하는 에듀케이터 양성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우내쉼플스테이 공간(게스트하우스, 펜션, 캠핑장, 강당, 회의실 등)을 운영합니다. ‘아우내 쉼플스테이’는 쉬고(쉽) 놀면서(플레이, Play) 머무는(스테이, Stay)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쉬고 놀고 머물면서 일상의 잔잔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운영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마을기업이 만들어졌나요?

마을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었지만, 당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폭우로 무너진 건물 복구에 드는 공사비, 유지비를 비롯한 기타 비용들입니다. 필요한 자금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게다가 협동조합을 설립하자마자 시작된 코로나팬데믹 상황은 우리에게 닥친 커다란 어려움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이 선택한 방법은 호혜에 기반한 ‘연대’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협동조합들이 뭉쳤습니다.

그렇게 아힘나평화학교가 있던 자리에는 주민 실험에서 연수원으로도 사용되는 협동조합연수원,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 역사관, 젊은 예술가들이 모인 아리ारी 협동조합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별개의 조직으로 존재하는 협동조합들이 아우내공동체를 중심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며, 공간을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주민실험에 있기는 하나, 공간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협동조합에 돌아갑니다. 호혜성에 바탕한 공동의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여기에 마을 주민들도 합류하였고, 마을기업을 신청하여 마을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기업의 이

름은 ‘아우내쉼플스테이’입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는 무엇인가?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아우내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는 아힘나평화학교를 운영할 때부터 내걸었던 ‘아이들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을 만들어 가자’입니다. 여기서 ‘아이’는 어린아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빈민, 소수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아우내공동체는 마을 속으로 스며들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개인을 보장하면서도 개인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를 갖고 연대하는 방식, ‘협동조합 간 협동’을 공동체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협력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아우내공동체, 우리 기업 자랑을 해주세요!

아우내장터 만세운동을 기억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관순 열사는 쉽게 떠올리지만, 마찬가지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김구응 열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풀뿌리에서 마을과 역사를 지켰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민(民)이 마을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아는 것은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아우내공동체의 조합원들이 역사 복원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일례로, 같은 공간에 있는 사

회적협동조합 기억과평화에서 운영하는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 역사관’은 일본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을 대상으로 자행된 간토대학살의 진실을 규명하고 올바른 역사를 전승하기 위한 노력이 담긴 공간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해주세요.

수해를 입었을 때 함께 문제를 극복해가면서 ‘자본’, 정확히는 ‘자본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NPO, 협동조합,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들과 MOU를 맺고, 과감하게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조합원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실험과의 협약, 투자로 활동의 큰 전환을 맞은 바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역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혹은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요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실험과의 협력에서 찾았습니다. ‘실험이 지역사회를 어부바하고 그것을 실험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아우내공동체가 하는 일은 마을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해결할 방법을 당사자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아우내공동체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써 앞으로의 다짐이나 기업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사실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함께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꼭 끈끈하게 묶이지 않았더라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힘을 모으고, 꼭 물리적으로 뭉쳐 있지 않았더라도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모이고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것을 실험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있는 공동체, 나와 나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행복해지는 삶. 연대, 상생, 협력, 소통, 이런 여러 가치들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단 일상에서 잔잔한 행복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탄소0을 만들 때까지!

공주)탄소영 협동조합

글 한울기자단 1기 신보현



탄소영협동조합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탄소영협동조합은 공주시 '여성 새일' 사업 중 탄소중립 창업 과정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마음 모아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120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다보니, 마음이 맞는 사람이 생겼고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협동조합까지 갈 줄 몰랐어요.

제로웨이스트 가게를 운영하며 환경 교육 콘텐츠와 키트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공주에 국한하지 않고 충청남도과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공주 원도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원도심'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통시장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제로웨이스트샵인 '알맹상점'도 서울 망원시장 내에 위치해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제로웨이스트샵을 방문하죠. 그리고 제로웨이스트샵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전통시장에 들러 장을 보기도 하고요. 우리도 그걸 노리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융합할 수 있는 공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탄소영협동조합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환경교육키트'가 대표적이에요. '탄소영협동조합'에는 재봉을 하시는 조합원님도 계시는데, 그 분이 청바지나 자투리 천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해 제로웨이스트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합니다. 판매 뿐만 아니라 환경 교육 사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플라스틱 사출기'를 들고 나가 교육을 하기도 해요. 고가의 물건이라 100명 이상의 수강생이 모였을 때 나갑니다. (웃음)



이번에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었는데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신 이유는 무엇 일까요?

더 많은 사람에게 '환경'보호에 관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주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에는 제로웨이스트 샵이 없어요. 제로웨이스트를 많이 알리고 권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장의 재무는 안정적이지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선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이 필요하다 느꼈어요. (예

비)사회적기업에 진입해 다양한 사회적기업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선정된 이후 저희와 자주 교류한 분이 서천에 제로웨이스트샵을 열기도 했습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가요?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요?

‘탄소중립’에 관한 인식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탄소영협동조합’의 고객들은 지역민보다 관광객들이 더 많은데요. 지역 안에서도 제로웨이스트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지역에서 크고 작은 환경축제를 개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샵 안에 ‘무지개 환전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지개 환전소’는 생활 속 재활용품을 모아 친환경 생필품으로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도장을 무한대로 찍어 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방문해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무지개 환전소’에서는 병뚜껑을 포함한 7가지의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재미있거나 보람찬 에피소드를 소개해주세요.

창업을 준비하면서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았 습니다. 초창기에는 월세 부담도 만만치 않았죠. 십시일반으로 1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자금을 마련했 어요. 운영을 위한 자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갔죠. 처음에는 인테리어 비용도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칠만 하고 초기에는 가게를 운영했 조. 가게에 들어오면서 아까 턱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죠? 이 ‘턱’에 관한 애착이 많습니다. ‘턱’ 때문 에 가게에 들어오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우리 가게에 오수가 누출 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짜증도 났지만 한 편 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대박 나려고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게를 조금 다채롭게 꾸며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 ‘휘파람마켓’ 지원 사업에 응모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가게의 리모델링 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바뀌어 가는 가게의 모습을 보고 재미있으면서 보람찼어요. 처음에는 가게의 안정화를 위해서 조합원들이 합심해서 밤도 새고, 물건을 하나하나 손수 포장하기도 했죠. 초창 기에 많은 고생을 한 것이 재미있으면서 보람찬 에 피소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조합원이 힘들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지요. 정해진 시간에 매장을 열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합니다. 하지만 조합원들 전부 본업이 있는 분들이 에요. 따라서, 시간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 다. 처음에는 매장 관리, 재고품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고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있음에도 전부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준 조합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다짐이나 기업의 방향성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초심을 잃지 않는다.’가 앞으로의 다짐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환경 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최근에 가게 내에 규모는 작지만 ‘공정무역’ 부스를 만들기도 했어요. 내년부터는 ‘리필스테이션 카(car)’로 운영하 기로 했어요. 지역 주민을 이동하면서 제로웨이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들고 싶었어요. 충남도는 현재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도정 목표로 삼고 있죠. ‘탄소영협동조합’도 충남의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함께 힘을 보 태고 싶습니다.

성장지원팀 사업 후기

충남사회적경제기업의 튼튼한 동반자

경영지원플랫폼 ‘씨앗(see:at)’ 자문단 및
광역 컨설턴트의 활동 성과



1. 전문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충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비교적 소규모로 창업하여 기업 내·외부의 주요 업무를 소수의 인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 생존을 위해 수익구조 창출 및 영업활동, 안정적인 조직 운영, 세무·회계, 인·허가 등 행정 관련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과제들은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역량으로만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확대 출범 이후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전문상담 및 자문사업을 기획·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역 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으로 기업 대표님들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부 자원 연계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과의 지역적 거리로 인해 상담 또는 자문 프로보노 연계나 저비용 전문서비스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역 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충남 지역 연고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10인의 분야별(법률, 행정, 세무, 회계, 인사, 노무, 복지, 산업안전) 전문인력의 협력의사를 확인하여 센터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2024년 6월 현재 12인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사회 내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자문단 구성 기준

충청남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전문가를 우선으로, 충청남도에 연고가 있는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센터의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



였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대학 및 전문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전문가들이 센터 사업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프로보노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실비 또는 저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충남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연계 시스템의 구축: 광역 컨설턴트 풀 구성

기업의 업종별 특성과 상담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충족하기 위해 전문가 풀의 확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전문가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전국단위로 광역 컨설턴트 풀

을 구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119명의 전문영역별 컨설턴트를 확보하여 다양한 기업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컨설턴트들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충남사회적경제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기업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충남 지역 내 컨설턴트들의 역량 강화와 활동 지원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전문컨설팅이 가능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구축하고자 합니다.

4. 사회적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의 중요성

전문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 지역 내 전문가들을 우선 발굴하고 연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편협하는 시각이나 이해 부족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며, 상담 서비스의 질적 만족

도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교류를 강화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상담과정에 중간자로 참여해 기업과 전문가 간 원활한 소통을 돕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기업의 문제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상담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비밀보장을 위해 상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기업 대표들이 상담 서비스를 통해 중요 의사결정, 운영 변경, 대응 방안 마련 등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85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센터 직원들의 적극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기업의 수시상담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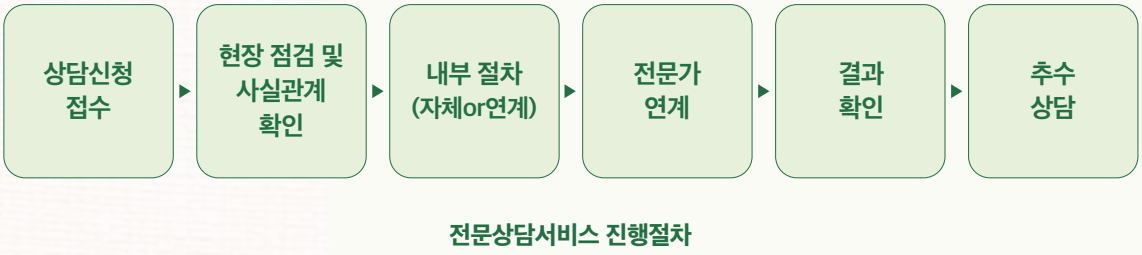
5. 그 동안의 주요 실적

2020년 하반기 100만원의 예산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사업은 2021년 상담 컨설팅 창구로 전환되었고, 2022년 '경영지원플랫폼 씨앗(see:at)'이 구축되면서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 정보 및 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적 운영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씨앗'에서는 충남사회적경제기업에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지원사업 소식: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② 컨설팅 창구: 경영 컨설팅 및 전문상담서비스 연계
- ③ 강의실 및 자료실: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영상, 정책자료, 교육자료, 각종 서식자료 등 구비

2020년 하반기 시범운영 이후 2024년(11. 25. 기준)으로 충남 지역의 167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432회의 전문상담 서비스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1개 기업당 평균 2.6회의 집중상담 및 자문을 수행했음을 의미합니다. (마을기업 현장 모니터링 횟수 제외).
전문상담서비스는 사실관계 확인과 신뢰 구축이 핵심입니다. 센터는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구축, 사실관계 파악, 현안 대응 및 예방활동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심도 있는 논의와 네트워킹을 중요시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세밀한 과정을 거쳐, 기업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문상담서비스는 그 동안 약 17.5억원의 직·간접적인 피해 및 손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에는 총



2020 하반기 ~ 2024(11.25.기준) 실적

*마을기업 현장모니터링 제외

기간	예산(천원)	신청기업 수	상담 횟수	주요 해결문제	직간접효과
2020 하반기	1,000	5개	16회	자문단 구성 및 단순 상담	시범 운영
2021	9,400	40개	85회	절차 개선 및 인사노무 문제 해결	제도개선 2건
2022	2,000	24개	63회	계약분쟁 해결 지원, 인사노무 문제 해결 및 예방	5.6억원
2023	33,000	40개	122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셜벤처 IR대회 최우수상 인사노무 문제 해결 및 예방 공모사업 수주 지원 광역컨설턴트 풀 구성 등	3.2억원
2024 (11.25.)	37,000	58개	146회	인사노무 문제 해결 및 예방 공모사업 수주(5개 기업) 지원	8.7억원
합계	82,400	167개	432회	평균 만족도 4.85/5점	제도개선 2건 17.5억

- 1개 기업당 평균 상담 2.59회, 1개 기업당 평균 493,413원, 1회 상담 평균 190,740원
- 1개 기업당 예산 대비 효과액 10,479천원, 1회 상담횟수당 예산 대비 효과액 4,509천원
- 예산 대비 효과 비율: 약 2,124%(후원사업 IR 투자유치액 제외)

6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사업 확장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 충청남도 재정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한 돌봄기업 사업모델은 2024년 보건복지부 간병급여 시범사업 모델로 채택되며, 전국적으로도 주목받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더불어,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서도 충남 지역이 두각을 나타내며 2개 사업이 선정되는 등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경영지원플랫폼 씨앗을 통한 지속적인 경영컨설팅과 전문상담서비스는 기업들이 사업영역의 집중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분야별 전문가의 사업계획 감수를 통해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활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공모사업 수주에 성공하는 등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자체 전문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전국 광역 단위에서의 컨설턴트 풀 구성과 전문서비스 제공 모델로 확장되는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기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씨앗’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6. 향후 전문상담서비스 운영 계획

충남사회적경제는 2025년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청양군에 위치한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완공으로 충남사회적경제 허브가 조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공간과 물적 인프라가 형성됩니다.

지금까지 경영지원 플랫폼 ‘씨앗’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엄선된 자문단 및 광역 컨설턴트 풀을 활용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업그레이드하여 혁신타운 내 입주기업에 대한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남사회적경제기업의 시간과 비용 절감 및 욕구 해소를 위한 서비스 영역확대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 네트워크와 시·군 중간지원조직 및 네트워크와의 연계와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의 상담수요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현장모니터링 및 리포팅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브 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에서는 “열매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조시 빌링스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이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뿌리깊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면 큰 결실을 거둘 수 없고, 잘못된 운영방식은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경영지원 플랫폼 ‘씨앗’은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고,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바로잡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약을 이루는 데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기반조성팀 사업 후기

2024 충남 사회적경제 한마당

11월 충남 청양에 사회적경제인들과 많은 도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11월 4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2024년 충남 사회적경제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사회적경제! 내일을 함께하는 새로운 변화!”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진행된 충남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는 민과 관이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 충남사회적경제한마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경제 지원기관부터 당사자조직, 지역의 대학부터 공기업들이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여 모두가 함께 준비한 충남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총 20개 기관과 단체에서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였고 3개 기업이 후원기관으로, 6개 기업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사회적경제인이 모여 한해를 돌아보며 열심히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행사이자 충남도민에게 사회적경제를 알리는 행사로 약 1,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행사는 충남도민들이 생각하는 지역문제와 사회적경제의 접점을 나타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역문제해결 중의 하나인 탄소중립, 로컬브랜딩, 청년 등 다양한 영역들이 사회적경제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지역청년예술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나빌레라의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24년에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회적경제인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도지사 표창 총 8개와 도의장 표창 5개, 충청남도 교육감 표창 8개, 충남 지역구 국회의원 상 20개,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에서 각각 1개의 감사패와 충남사회경제연대에서 2개의 감사패를 수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충남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충남사회적경제한마당 추진위원회 노재정 추진위원장(충남사회경제연대 상임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충청남도 전형식 부지사, 충청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 청양군 김돈곤 군수가 축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회적가치들이 나타난 키워드에 손을 올리면서 키워드에서 나타난 빛과 함께 올해 [사회적경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 한 마당 슬로건이 나타나는 퍼포먼스와 함께 기념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념행사 외에도 사회적경제와 관련있는 다양한 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등이 진행되기도 하고 사회적경제와 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에서 정보제공 부스를 운영하여 참여한 사회적경제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소공연장 2층에서는 충남 사회적경제가 걸어온 발자취와 로컬브랜딩, 청년, 탄소중립 분야의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청양에 개소하는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대한 소개 등의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충남 사회적경제 친환경놀이터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6개에서 무료체험 진행, 포토부스 운영, 사회적경제 응원한마디 체험이 진행되어 방문한 충남도민에게 즐거운 놀이거리를 제공하면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 당일날 사회적경제 판매전이 진행되었는데도 총 34개 기업이 참여한 사회적경제판매전은 청양군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플리마켓 '달빛마켓'과 연계하여 청양의 사회적경제 제품들과 함께 청년문제, 탄소중립, 건강한 먹거리, 착한 고용 등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충남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모여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판매전이 진행되는 공간에서는 아산시 아산달인 라이브커머스 수소차량을 활용한 마술쇼부터 밴드 등의 공연이 진행되었고, 현장에서 라이브커머스로 방송하는 등 즐거운 축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며 2025년에 늘 행복만 가득 하길 바랍니다.



마을기업팀 사업 후기

마을기업 판로사업 더 알아보기

2024년도 마을기업팀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을 참고로 하여 2025년에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다양한 사업을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마을기업 판로사업에 대한 후기를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코스트코 비즈니스 익스포

2024년 마을기업팀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누어 판로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와 코스트코에서는 코스트코 비즈니스 익스포를 진행하였습니다. 코스트코 비즈니스 익스포는 충청권(천안, 대전, 세종)의 코스트코 매장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마을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형 유통망에 마을기업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였고, 저희팀에서도 배너, 테이블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코스트코 매장에서 직접 고객들을 만나 제품을 설명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고객들이 마을기업 제품의 품질에 만족하여 현장에서 주문을 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마을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독립기념관과 함께하는 따숨마켓입니다. 독립기념관 따숨마켓은 마을기업에서 많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한 연휴에 진행되었던 독립기념관과 함께하는 따숨마켓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마을기업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마을기업 스탬프투어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의 판매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스탬프 투어 용지 뒷면에는 마을기업 제품 소개를 넣어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편리하게 리플렛을 제공하였습니다. 따숨마켓은 플리마켓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이라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열린 행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주셨고, 현장에서 직접 고객들과 소통하며,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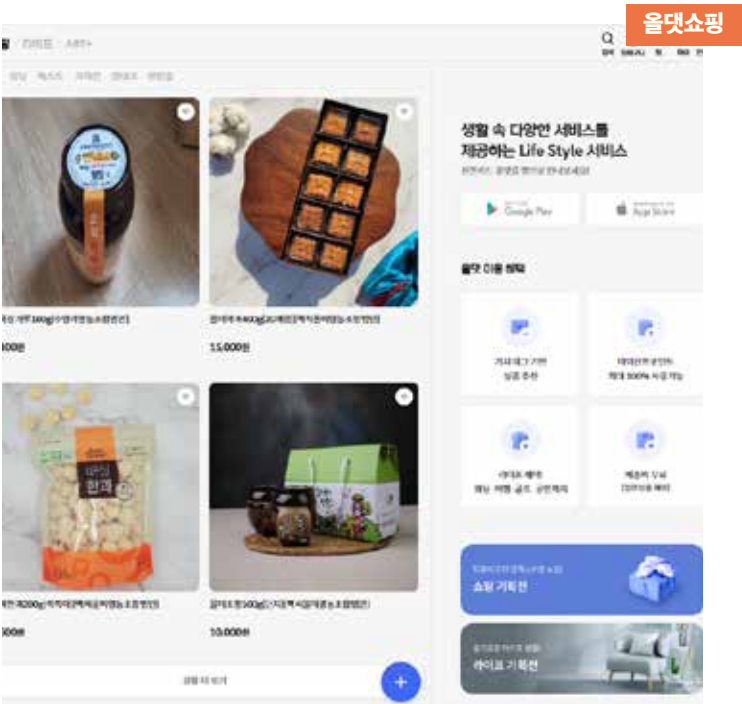


따숨마켓



따숨마켓 스탬프투어

2024년에도 온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신한카드 올댓쇼핑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기획전을 시작하여 ESG특화 판매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따숨물에서 진행하는 마을기업 김장전 또한 2024년에도 진행하였습니다.
 신한카드 올댓쇼핑에서는 추석 기획전을 진행하여 많은 마을기업 물품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10개소 마을기업의 고유한 제품과 스토리를 소개하며 소비자들은 충남의 다양한 특산물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품질 높은 제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온라인 마을기업 김장전은 2024년 따숨물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따숨물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에게 마을기업이 키운 싱싱한 농산물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김장철을 맞이하여 특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맛 좋은 절임배추와 고춧가루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SNS채널을 활용하고, 기존 고객들에게 많은 홍보를 진행하여 원활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소개해 드린 판로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기획전과 마켓, 교육에 참여하여 마을기업팀에서는 많은 것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응원 섞인 칭찬으로 잘 했을 때는 그 이상의 칭찬으로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마을기업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마을기업의 의견을 듣는 마을기업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기업 파이팅!

용기 내어 따숨마켓 참여후기

글 한울기자단 1기 김교연



제로 웨이스트란 "재활용과 재사용 권장을 통해 폐기물 소각 및 매립을 지양하는 자원 보호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벤트로 제공되는 제로 웨이스트 상품은 바로 '천연 수세미'입니다. 이 천연 수세미는 충남 예산에서 자란 것으로 직접 제작하셨다고 해요.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지키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충남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용기내어 '먹거리 따숨마켓'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먹거리 따숨마켓'은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맛있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다회용기를 통해 일회용품을 최소화하고 환경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행사 현장 분위기가 어떨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행사 덕분에 처음으로 독립기념관에 방문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인증샷과 함께 부스를 둘러보고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부스에서 음식을 구매하면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사용한 다회용기는 수거부스에서 반납할 수 있었어요. 따숨마켓 부스에서 20,000원 이상 구매시 제로 웨이스트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되었어요

따숨마켓의 부스에서는 아래 사진들과 같이 천안의 특산물인 멜론, 호두, 배 등을 판매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도 있었고, 지역에서 직접 재배해서 만든 제품들(된장, 김부각, 누룽지, 차 등)을 판매하는 기업도 있었어요.
그리고 구경하면서 간단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충남 아산 쌀로 만든 떡구이와 알밤 품은 봉어빵, 보령 크롱지 외에도 떡볶이와 음료 등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었답니다! 모든 음식이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점심으로 꼬마 김밥을 먹었습니다.
일회용 젓가락 대신 다회용 포크를 주시더라고요! 포크의 재질이 생각보다 튼튼하고 좋아서 먹기에 불편함 없이 편하게 잘 먹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서 환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든든하게 밥을 먹고 부스를 둘러보던 중 에프앤비 브릿지 협동조합에서 직접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체험이 있어서 참여해 보았어요. 드립커피는 처음이라 어려울 줄 알았는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생각보다 쉽고 재밌었어요!
커피 내리기를 기다리며 차분해지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한다고 칭찬도 받았답니다. 마찬가지로 커피도 포크와 같이 이렇게 다회용기에 받아서 마셨어요.

마켓을 둘러보던 중 건강해보이는 표고버섯이 눈에 띄었는데요. 친환경 인증을 받은 100% 국내산 표고버섯이라고 하며, 학교 급식에도 사용된다고 해요. 그만큼 믿을 수 있고 좋은 표고버섯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켓이 더 자주, 많이 생겨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사회적경제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풀무생협 유기농 이야기 친환경 팝업 매장 소개 & 밀랍랩 만들기

한울기자단 1기 김민하

풀무생협 유기농이야기에서 7월 ~ 12월까지 사회적경제 팝업매장이
진행되었고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속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란?

소비자협동조합은 회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하
여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이들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며,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
치도 중요시합니다. 풀무생협은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유
기농 농수산물들을 공급하며,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
습니다.



내포신도시에서 건강한 먹거리, 유기농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매장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유기농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가입비 1만원을 내면
조합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가입비를 내는 회원만큼 조합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누릴 수 있어요.



입구부터 장보기 쉽게 카트가 꺼내져있고,
유서 깊은 풀무생협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타임라인도 보실 수 있어요.
풀무생협 유기농이야기는 충청남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되었습니다.



풀무생협 유기농이야기는 유기농 농수산물은
물론이고 충남 사회적경제 친환경 팝업매장으로
충남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친환경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고, 베이커리와 작은 카페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쇼핑을 하면서
시원한 카페음료도 맛볼 수 있어요.



매대에 식자재 재고가 한두개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형마트처럼 재고가 쌓여있는 것만 보다
풀무생협 유기농이야기에 판매하는 단호박 3개를 보니
보다 더 신선한 먹거리로 느껴지더라고요.



유기농 농수산물과 한우와 한돈,
그리고 다양한 유기농 식자재들,
아이들이 먹을만한 건강한 간식들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고
반려동물 사료도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 팝업매장 존에는 충남 사회적경제 기업들
의 친환경 제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진열되어있습니다.
이전에 따숨마켓에서 봤던 업사이클링 키링과
휴대용 휴지케이스를 보니 반갑더라고요.

이외에도 친환경 비누, 삼베수세미, 과일세척솔,
네트백 등 다양한 제품들을 친환경 팝업매장에서
구경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제가 방문했던 날은 특별한 클래스가 진행되는 날이었는데요 ~
풀무생협 유기농이야기 내부에 자리잡은 카페에서
'친환경 밀랍랩 만들기' 클래스가 진행되었어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클래스가 열렸어요.
충남사회적기업인 함께그린협동조합에서 클래스를
진행해주셨어요. 단순히 밀랍랩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아니라 왜 친환경제품인 밀랍랩을 사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강의와 밀랍랩 만들기가 진행되었어요.

밀랍랩이란?

밀랍랩은 우리가 주방에서 자주 쓰는 일회용 랩대신 다회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랩이에요. 비닐봉지나 비닐랩을 대신해서 사용하
는 다회용품입니다.



밀랍랩은 천을 밀랍으로 코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만드는 방법도 생각보다
쉽고 이용과 세척방법도 쉬웠어요!



사실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일회용품의 사용으로 늘어나는 쓰레기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생각을 못했는데
강사님의 교육을 통해 그 심각성이 확 와닿았어요.

배달서비스이용의 증가로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와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며 발생한 미세플라스틱들
그리고 처리불능상태로 바다로까지 유출되는 쓰레기와
그로인해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 쓰레기를 먹고 죽는
동물들까지....

사실 요즘 먹는걸로 장난을 치는 뉴스들을 자주 접하면서
건강한 먹거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온전히 믿을 수 없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오랜시간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일해 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부터 시작된 유기농 농수산물
마트라서 풀무생협 유기농마트는 신뢰가 가더라고요 ~

생산자와 이용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풀무생협 유기농이야기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SVI의 중요성

김대열 센터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세종통합센터



1.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SVI)의 이해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기업가들에게는 재정지원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재무재표, 당기순이익, 일자리 창출 등 일반 기업과 비슷한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공익적 성격에 맞는 사회적가치를 평가 받을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지표 개발 연구를 시작으로 2017년 초기 사회적가치지표를 만들 때까지의 노력과 2019년 시범사업으로 사회적가치지표를 실현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현장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서 만든 과정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영역에서 공신력 있는 사회적가치지표인 SVI는 금융지원, 우선구매제도, 지자체 공모사업 등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영역에서도 ESG의 개념이나 SPC(사회성과보상 제도)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 평가를 검증받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SVI)의 개념은 2017년에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화폐 등의 경제적 회계가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가치는 비단 한국에서만 강조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유엔에서 2030년까지 지구의 지속가능발전(SDG's)을 달성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OECD가 2022년에 권고한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며, 2023년에 발표한 ‘사회적 성과 측정 정책 지침’에서도 사회적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OECD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2022년에 제시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관련 결의에 대한 후속조치’, 2023년 UN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성과 측정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OECD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소셜임팩트 측정 보고서’에서 SVI지표가 소개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에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가치지표(SVI)를 담고 있습니다.

2. 충남 사회적가치지표(Social Value Index, SVI) 측정 평가 현황

충남도청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제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자체 자체 예산(시군지자체 매칭)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사회적가치지표(SVI) 중 일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광역지자체가 사회적가치 측면을 사회적기업에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관내 159개 인증사회적기업과 112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완료 19개, 측정 중인 기업 21개, 재측정 등 추가 측정기업까지 하면 총 47개 기업이 신청접수 및 측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22~`23년까지 총 67개 기업이 측정을 완료한 상황으로 270여개에 달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107개 기업이 측정에 참여한 상황입니다. 시범사업을 포함한 충남지역의 (예비)사회적기업 SVI측정 결과는 2021년~2024년 현재까지 총 92개소가 평가를 받았으며, 이 중 우수인 기업은 (주)즐거운밥상 등 11개소, 탁월 등급 2022년에 측정한 주식회사라임프렌즈 1개소입니다.

◆ 22년~23년 지역별 SVI 측정 현황(기업 수 기준)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22	12	24	8	53	11	7	5	4	47	1	9	5	14	5	3	6	8	222
`23	75	230	33	95	33	47	24	96	227	8	27	51	27	74	26	61	84	1,218

◆ 24년 지역별 SVI 측정 신청 현황(기업 수 기준)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24	32	213	33	66	41	29	27	39	171	11	13	41	50	99	15	47	25	952

3.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지표 (Social Value Index, SVI)측정의 중요성 (공공구매와 연계)

사회적가치지표는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공공성, 공익성, 투명성을 전제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인 공공우선구매 제도와 연계되어 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청소소독방역 사업에 사회적기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3년 전부터 SVI 측정 참여기업 추천을 요청해 왔습니다. 금융지원 선정평가 체계에서도 SVI를 기초로 금융지원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정 업종이나 특정 공공기관으로 한정된 것도, 충남도청의 사업개발비에 한정된 사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에는 2026년부터 공공우선구매 실적에서 SVI 우수 및 탁월 기업에 한정해서 실적에 포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지자체합동평가 등에도 SVI 지표 활용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결론

충남권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영역 및 공공영역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가 자생력의 핵심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가운데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는 공공의 영역 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ESG가 투자자에게 기업의 가치를 증명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매출과 투자를 높이는 핵심 과제라면 공공영역에서는 SVI가 핵심이고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시대에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는 SV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